

전북연구원 보도자료

아름다운 산하 응비하는
생명의 삶터, 천년 전북!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▪문의 : 연구본부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▪담당자 : 지역개발연구부 이성재 연구위원
(063-280-7153, 010-2630-3248)

보도시점 : 2020년 5월 11일(금)부터

전북형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 해야

-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및 연관산업 성장·확대
- 전북은 동물보호센터와 운영인력,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등 동물복지 인프라 우수
-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, 반려동물 여가복지 생태계 조성, 연관산업 육성해야

-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 차원의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.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11일 『전북형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산업 육성(안)』이라는 이슈브리핑(219호)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전북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, 연관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을 제안했다.
- 전북연구원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중이 ‘18년 23.7%에서 ‘25년 31.3%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반려동물 문화의 성숙은 더디다고 지적했다.
- 반려견 인식표, 반려견 외출시 목줄 착용 등 소유자 의무 미준수 사례가 여전하지만 인식 수준 미성숙, 홍보·교육 부족, 법적 단속 한계

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.

- 반면, 전북의 동물보호센터와 센터 운영인력은 전국에서 경기와 서울을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고,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전국의 33.2%인 87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동물복지 관련 인프라가 우수한 전북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'17년 기준 2조 3,000억원에서 '27년 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, 정부 또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에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나아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.
- 1단계는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 전략으로 유기동물 입양·구조,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의 계속사업을 지속 추진하고, 반려동물 생산·유통·판매업 합동 지도·점검 강화와 동물교육보호센터 조성, 동물보호 문화 및 반려동물 산업 축제 등을 제시했다.
- 2단계로 반려동물 여가·복지 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하고 소규모 놀이터 조성, 복합 문화공간, 동물교감 치유단지, 국가유공견 명예의 전당 등을 제안했다.
- 3단계 전략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으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, 건강 기능성 펫푸드 산업 플랫폼 구축, 펫푸드 및 애완용품 등 연관분야 산업화 지원, 반려용품 전시·판매장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-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잡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,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반려동물 복지와 여가, 연관산업 인프라 여건이 우수한 전북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.